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8월 4일(주일) 제1257호



“당신의 뜻,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하용조 목사 소천 8주기 추모예배 드려 가족, 성도, 교회리더십 등 1천여 명 참석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 소천 8주기를 보내며 그리울수록 더욱 새로워지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7월 29일(월)부터 어제(3일)까지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을 보냈다. 이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새벽예배에서는 하용조 목사 설교영상이 상영됐다. 7월 31일(수)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과 8월 2일(금)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에서는 ‘하용조 목사 소천 8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하용조 목사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가족, 성도, 교회리더십, 목회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하용조 목사를 기렸다. 7월 3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 추모예배에는 하용조 목사 가족과 성도 약 8백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예배는 이재훈 담임목사(사회, 조향진 장로 대표기도, 하용조 목사 추모영상 상영, 이태웅 목사(한국해외선교회 글로벌리더십포커스 원장) 설교, 조정민 목사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태웅 목사는 ‘포기 못할 소망’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하용조 목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증하신 천국에 대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사역했던 분”이라며 “우리도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8월 2일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에서 드린 추모예배에는 하용조 목사 가족과 지인, 당회운영위원, 목회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예배는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사회, 당회서기 정진호 장로 대표기도, 이태웅 목사 설교, 이상준 목사 축도, 헌화 등의 순

로 진행됐다.

김영례 권사(강서공동체)는 “하용조 목사님의 비전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했고, 박종익 집사(마포공동체)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받아 하용조 목사님의 선교 비전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두란노서원에서 하용조 목사가 생전 애꿎은 심정으로 전한 복음을 믿을 때 나타나는 7가지 능력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신간 <예수님의 7불레싱>을 발간했다. 두란노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1만원.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주민들과 함께 ‘Harvest 2019’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

이주민들과 추석을 함께 보내는 ‘Harvest 2019’가 막 오른다.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Revel up’을 주제로 진행된다. 러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미얀마, 몽골, 인도 등지에서 온 이주민 550여명과 봉사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Harvest 2019에서는 세 번의 예배, 간증 나눔, 문화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된다. 도육환 목사(양지 온누리교회), 은 목사(안산M센터 베트남어예배 담당), 레비 아르난 목사(필리핀

그린힐크리스천교회 담임)가 강의한다.

온누리M미션 관계자는 “집회준비를 도와줄 봉사자 120명이 필요하다”면서 “예배 및 숙소 세팅, 식사와 간식 준비, 의료, 통역, 접수, 사진 영상, 차세대 사역 등을 도와줄 성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Harvest 2019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8월 18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물품 후원도 받고 있다. 빵(식빵, 크루아상, 베이글) 750개, 고기(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750인분, 콘플레이크

750봉지, 국그릇 750개, 믹스커피 750개, 종이접시 750개 등이 필요하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본부장)는 “Harvest 2019를 통해서 이주민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면서 “이주민들에게 신앙과 선교의 도전을 심어주는 이번 행사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 봉사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자원봉사자 010-3937-3927

물품후원 010-4732-4371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제이흠 가정위탁 설명회 개최

8월 18일 오후 6시 서빙고 꿈아이홀

사회선교부 제이흠에서 가정위탁 설명회를 8월 18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꿈아이홀에서 개최한다. 식사 및 교제, 한화수 목사(제이흠 담당)의 말씀, 김수진 부장(대한사회복지회)의 위탁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창화 팀장(제이흠)은 “위탁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위탁과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책 읽어주는 목사

인간의 언어로 말하다



〈광세〉

블레즈 파스칼 저 | 민음사 | 11,000원

성경은 하나님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을 말한다. 이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인간은 누구인지, 인간은 어떤 일을 했는지 솔직하게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인간을 만난다. 이러한 성경의 특징을 지닌 책이 있다. 파스칼의 〈

광세〉다.

〈광세〉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과 하나님 있는 인간의 복됨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은 타락한 인간을 다룬다. 어떤 면에서 인간을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이 타락했음을 말해주는 표징이 무엇인가?

“어떤 왕이 전 유럽의 웃음거리가 되고도 자기만은 이것을 모를 수도 있다.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는 유익하지만 말하는 사람에게는 해롭다. 미움을 사기 때문에. 그런데 왕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왕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자기를 해치면서까지 왕의 이익을 도모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인간은 자신 안에서나 타인에게서나 위장이고 기만이고 위선일 뿐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발전에 의해 완성되는 모든 것은 발전에 의해 망한다. 악했던 모든 것은 결코 절대적으로 강해질 수 없다. 그는 성장했고, 변했다고 말해 봤자 소용없다.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

인간은 발전적이다. 인간은 멸망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파스칼이 관찰한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고, 그 인간이 지니는 비참이다. 어느 누구도 이 비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파스칼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는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에서 하나님 있는 인간의 복됨으로 나아간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선이고, 그의 모든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의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이다. 영혼을 속박하는 자애심과 타락은 하나님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 하나님은 영혼을 타락시키는 자애심의 뿌리를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만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타락과 비참 속에 떨어진 인간은 지난날의 위대함과 영광에 복귀하기를 갈망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의 재결합을 꿈꾼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에게는 이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되며, 비로소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은혜와 구속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자연으로서의 인간에서 은혜로서

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본 저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것은 저자가 신적 언어를 인간적 언어로 풀이했음을 의미한다. 저자는 인간의 자연적 위치에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기나긴 여정을 간다. 저자의 궁극적 목적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저자는 이 여정에서 인간의 편에서 서서 끝까지 인간과 동행하기를 택하였다. 이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저자는 인간의 언어로 말하고,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기에 힘쓴다. 구원하는 주체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주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본 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언어,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 메시지이며, 공감에 넘치는 메시지다. 나는 〈광세〉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한다. 인간 절망의 소리를 대변하지 않고서 인간과의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화수 목사
(동작공동체)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어요.”

답: “믿고 싶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시지요? 참 솔직하시군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안 믿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담, 곧 죄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의 작은 부분이지만 진짜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안, 두려움, 근심에 눌리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요.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믿음은 내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는 먼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해 보세요.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롬 10:10)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믿겠습니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믿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지

만 믿고 싶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먼저 입으로 시인하도록 도와주면 효과적이다. 간경화로 복수가 차서 위독한 알코올 중독자인 한 남성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했다. 다문화가정인 그의 가정을 10년 동안 돌보며 복음을 전한 한 권사님의 열매로 외국인 아내와 자녀들은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학창시절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았지만 예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어린 시절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매번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다. 최근에는 산신을 믿으며 산에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병이 악화되어 입원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고 싶었지요?”

내 질문에 벽을 향하고 있던 그가 얼굴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학창시절 세례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믿고 싶는데 믿어지지 않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담, 곧 죄 때문입니다.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의 작은 부분이지만 진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어딘가에 얽매 있게 되지요. 현재의 내 상태를 보고 무가치하며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시며 돌아오라고 손짓 하십니다.”

그는 내 말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시 24:9). 나는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영을 대적하며 그의 닫힌 문이 들리라고 말씀을 선포했다.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고 느껴지지 않아도 먼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해 보라. 믿고 싶다고 말해보라. 그러면 놀랍게도 믿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그에게 입으로 시인할 것을 권했다. 그는 어느새 내 말에 귀 기울이며 순순히 내 말을 따랐

다. 그의 육체는 고통스러워했지만 눈빛은 의심의 안개가 걷힌 듯 빛났다.

중독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다.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믿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악한 영을 묶고 복음을 다시 들려줘야 한다. 말만 해서 되는지 의심할지 모른다. 전도하다 보면 특히 어르신들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줄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가 있다. 그럼 먼저 입으로 시인하도록 해보라.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 변화가 일어나 믿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갓난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마음을 계속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된다.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여전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전도여왕의 전도레시피〉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돈과 소유에 대한 지나치고 왜곡된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구두쇠, 수전노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마이저(miser)’와 연결되는 ‘비참한(miserable)’입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연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두쇠, 수전노의 삶은 결국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서서히 우리의 목을 조여 오며 삶을 파괴시킵니다.

탐욕의 다섯 단계

탐욕은 다섯 단계로 자리잡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단순한 소유물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소유 행위 자체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 때부터 탐욕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유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어떤 것이 곧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소유가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에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 당하는 것입니다. 소유물에 의해서 자신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물건처럼 비인간화, 비인격화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의 소유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필요와 문제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탐욕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부터 점점 분리되고, 답을 쌓게 됩니다. 타인의 필요를 점점 무시하면 고독하게 됩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의 소유까지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무정함은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존재는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 무서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조를 형성하면 사회체계 자체를 탐욕스러운 악이 지배합니다. 이러한 탐욕은 점점 자라나 우리 인생과 사회의 목을 졸라 파멸시키고 맙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5) - 탐욕

열왕기상 21:1~16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 무너지지 않고,
탐욕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탐욕

탐욕의 다섯 단계의 악이 주전 856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납니다. 아합 왕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그는 시돈 왕 엡바알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시돈 왕 엡바알은 바알과 에스다롯의 제사장을 겸한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딸 이세벨을 아합 왕과 결혼시키므로써 이스라엘까지 바알을 숭배하도록 전염시키고자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결혼할 때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갖고 왔고, 남편 아합을 시작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숭배가 물들게 했습니다.

아합 왕이 어느 날, 자신의 궁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미 아합 왕에게는 풍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했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땅의 경계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기에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 왕은 악했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낙심했습니다. 탐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 남편을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제 뭘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7절)

빼앗아 준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탐욕의 세 번째 단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유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어떤 탐욕이든 합리화해버립니다. 이세벨은 왕이 원하는 포도원을 얻기 위해 거짓으로 음모를 꾸밂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 그를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타인의 필요를 무시하고, 거짓과 악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탈했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승리의 삶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눅 12:14-15).

탐욕은 생명이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유의식, 지나치게 왜곡된 소유의식이 탐욕입니다. 어느 부자가 수확이 잘 되어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창고를 더 크게, 더 많이 지어서 물건과 곡식을 쌓아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창고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잘못된 소유의식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입니다. 내 곡식, 내 물건, 내 창고, 심지어 영혼도 내 영혼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탄이 성공한 것입니다. 사탄이 왜곡된 소유의식을 이용해서 탐욕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원하게 하고,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소유물에 의해 소유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무정하게 되고, 심지어 악을 행하면서까지 자신의 소유의식을 만족해 가는 탐욕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찢었다”(딤후 6:10).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고, 돈을 사모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통으로 자기 자신을 찢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왜곡된 소유의식, 지나친 사랑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소유는 많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자만 그런 위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돈을 사랑하게 될 위험은 동일합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탐욕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다섯 단계를 뒤집어 적용하면 됩니다. 첫째,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둘째,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셋째, 소유의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가진다. 넷째, 이웃의 필요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필요를 채워준다. 다섯째, 선을 베풀기를 즐기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남을 섬긴다. 이것이 탐욕을 이기는 승리의 삶입니다.

탐욕의 시대에 경종 올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거저 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잠 11:24-25).

저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분을 작년에 만났습니다. 지난해 4월 초, 고 김영길 장로님의 부인이신 김영애 권사님께서 두 분의 권사님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한 분은 85세 된 분이고, 다른 한 분은 그분의 사촌동생으로 72세 된 분입니다. 두 분은 1975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봉제공장에서 도시락 하나로 하루 식사를 해결하고, 허기를 물로 달래며,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는 재물을만 돌리다 왔구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두 자매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선교하기가 어려워 다시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살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은 “무슨 한국에 선교사로 가느냐?”고 했지만 그분들은 여수 애양원에서 18년 동안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한이 되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얼마 전 시체에 넣은 노인복지 아파트가 승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분이 평생 모은 돈을 한동대학교에 기부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사시려고 전 재산을 기부하십니까?”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희는 노후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우리 둘 합쳐서 1,200불 정도니 노인복지 아파트 값 내고 절약하면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두 분은 사진찍히는 것조차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한 탐욕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요, 과부의 두 렵돈이요, 옥합을 깨뜨린 귀한 분들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고,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소유에 의해서 소유당하는 인생, 타인의 필요에 무감각하고, 때로는 악을 범하면서까지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 무너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차세대 파워스테이션

베트남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고 있습니다”(엡 2:22).

차세대 파워스테이션이 베트남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함께한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다. 7박8일 간의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했다.

파워스테이션을 섬긴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특별히 올해는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청소년 예배를 섬기면서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마음 한편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있었다. 돌과 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갈급함을 채워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우리는 아웃리치를 위해 3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훈련을 받았다. 사도행전 필사와 함께 매일 큐티묵상을 나눴다. 매일의 큐티나눔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이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성숙해졌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우리는 베트남 현지 교회의 어린이 캠프와 청년예배를 섬겼다. 그리고 거리공연을 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다. 나에게 도전이 됐던 것 중 하나는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춤을 춰본 경험이 없으며 나



차세대 파워스테이션이 베트남 거리공연을 하고 있다.

자신이 춤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틀리지만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안무 외우기에만 급급했다.

드디어 베트남 현지교회에서의 특순 시간이 되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가사에 맞춰 손을 위로 뻗은 그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가득 차올랐다.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것이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주셨다는 감격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가장 자신 없어 했던 워십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셨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사파 지역으로 이동했다.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을 둘러보고,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 정상

에도 올라갔다. 산꼭대기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했다. 산 정상에 도착해서 찬양을 시작함과 동시에 하늘에 태양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안개에 가려져 있던 산 아래 시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순간 “주여야 내가 보여주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렴”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비바람으로 정상까지 갈 수 없었던 길을 열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름과 안개로 가득했던 그곳에서 우리에게 해를 보여주셨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이었다. 수많은 불상들을 향해 절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다.

이번 베트남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경험했다. 팀원 12명이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졌음을 감사드린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계속되기를 소망한다. 선하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박주영 교사
(차세대 파워스테이션 팀장)

대전 여성사역팀

일본 동경

지난 7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전 온누리교회 여성사역팀은 일본 동경 에다가와 ‘사랑의교회’에서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대전 온누리교회 여성사역팀 담당 전도사님께서는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잘 훈련된 여성 순장님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도 그 요청에 순종해 이번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막상 아웃리치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과연 내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인가?” 등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감사하게도 걱정은 잠시뿐이었다. 함께 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됐다.

대전 온누리교회 여성사역팀은 사랑의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이번 아웃리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총명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를 마치고 곧바로 동경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고향의 집’으로 이동했다. ‘고향의 집’은 에다가와 사랑의교회가 섬기고 있는 기관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직원 50여 명을 위한 저녁식사를 준비했다. 익숙하지 않은 주방시설이었지만 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한



대전 온누리교회 여성사역팀이 에다가와 사랑의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다.

국음식을 준비했고 그 음식을 통해 위로 받는 직원들을 보며 많은 감사와 기쁨을 경험했다.

아웃리치 둘째 날부터 이틀 동안 우리는 여성들을 위한 스쿨을 진행하였다. 이번 스쿨은 이기복 목사님이 쓰신 책 <성경적 아내교실>을 교재로 진행됐다. 스쿨의 이름도 책 제목을 따서 ‘성경적 아내교실’이었다. 성경적인 가정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성경적 아내교실에는 일본의 이민자, 주재원, 일본인과의 국제결혼 등 각기 다른 이유로 일본에서 생활하는 20여 명의 한국인 여성들이 참석했다.

스쿨 첫날, 강의장 안은 대전 온누리교회 여성사역팀이 손수 준비해 온 테이블보, 작은 화병 등으로 화사하게 꾸며져 있었다. 스쿨 후에는 직접 만든 밀반찬과 음식까지 대접해 참석자들은 크게 감동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참석자 한 분, 한 분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강의에 집중하고 나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스쿨 둘째 날, 나는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참석한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신 많은 분들도 스쿨이 진행되는 내내 참가자들을 위해 중보했다. 강의가 끝나고 화관을 씌워주며 조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고 축복해주는데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주일예배에서는 아웃리치를 섬기고 돌아온 사람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순간 아웃리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번 아웃리치를 함께 섬겼던 집사님과 우연히 눈이 마주치게 됐다. 그러자 내 안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 귀한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김영선 성도
(대전 온누리교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

도곡공동체
프랑스

안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

우리는 12시간 긴 비행 끝에 파리 공항에 도착했다. 곧바로 TGV(프랑스 기차)를 타고 50여 분을 달려 Lille에 도착했다니 고운님 선교사님이 마중 나와 계셨다. 고운님 선교사님은 컴미션 소속으로 2005년 온누리교회에서 파송 받아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와 프랑스 북부 지역 아프리카 난민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수차례 프랑스 아웃리치를 계획했었는데 시간적 문제, 문화적 차이, 선진국에 간다는 부담감으로 무산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같은 비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소수지만 기도로 준비하며 프랑스를 방문하게 됐다. 온누리교회에서 아웃리치 온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웬지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첫 날 방문한 샤또 블랑이라는 450년 된 고성영국 선교사가 구입한 것인데 지금은 갭이어(gap year, 흔히 고교 졸업 후 대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보내는 1년)로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생활하고 있다. 10여 명의 한국 청년들은 이곳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훈련을 받으며 일 년에 두 번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한 달씩 ‘팔리베(Talibe, 구걸하는 아이들)’를 위한 사역을 한다.

다음 날은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선



도곡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샤또 블랑에서 난민 청년들과 식탁교제를 나누었다.

교사님과 불어권 선교에 대한 아웃라인을 공부하며 예배를 드렸다. 저녁에는 카메룬, 토고, 코트디부아르에서 탈출한 난민 청년 17명을 샤또 블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제했다. 그들은 그들 특유의 춤을 추며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었다.

3일차 오전 예배와 점심은 우리 공동체가 준비해서 가져간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영국, 프랑스, 중앙아프리카 선교사님들에게 대

접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공동체에서 지원받은 많은 의약품, 모기 퇴치기, 오래 먹을 수 있는 한국 식료품 등이 큰 도움이 됐다.

오후에는 선교전략회의와 기도회를 가졌다. 프랑스 방송기자가 몇 년 전 만든 르포 ‘Talibe’도 봤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팔리베인 어린 학생들이 마라부(Marabout)라는 스승(스승이라기보다 점쟁이, 주술사, 약사 사기

꾼에 가까움) 밑에서 혹독한 교육(코란 암송)을 받으며 구걸을 하는 처참한 내용을 밀착 취재한 것이었다. 팔리베 아이들은 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고운님 선교사님은 5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7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한다.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많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크게 들었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에는 현지 선교사님들의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영국 감리교 목사 부인이 환상으로 본 요한계시록 14개의 계시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2020년 Lille 성당에서 3개월 동안 전시한다고 한다. 이송 비용에 6,000유로나 들기에 재정 마련을 위한 기도 요청을 하였다. 이 프로젝트가 디자인 문화 도시로 선정된 Lille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안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알게 된 이들과 사역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와 관심, 후원으로 그들을 돕고 책임져야 한다. 마지막 날까지 기도로서 내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책임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양원경 권사
(도곡공동체)

양지 YJ청년부
충북 괴산

귀중한 경험과 배움

이번 아웃리치는 얻은 게 많은 여행이었다. 괴산이라는 낯선 땅에 가게 되면서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여행이었다. 1박2일 비교적 짧은 일정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은혜 가득한 아웃리치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마을을 부흥시키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양곡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 됐던 아웃리치팀에서 함께할 수 있었던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귀중한 경험이었다.

4년 전, 베트남 아웃리치를 다녀온 적이 있다. 중학생이었던 나는 타지에서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만 주님에 대해 진실로 배운 경험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아웃리치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번 아웃리치에 참여했다는 생각이 든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어색하고 낯선 분위기와 마주했다.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 또한 마음을 쉽게 열지 않으시는 듯 보였다. 그러나 마을 회관들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니 서서히 아웃리치팀을 반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 날 열린 마을잔치에 참여하시면서 점점 하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한쪽만 참여하는 잔치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양지 YJ청년부와 성인공동체는 충북 괴산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왔다.

있었던 마을잔치인 듯 했다. 날씨가 더운 탓에 모두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마을의 부흥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했던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타인을 위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번에 다녀온 아웃리치는 개인적으로 한걸음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지만, 청년부 안에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 이번 아웃리치로 인해 주어진 하루는 서로를 챙기고 생각하기

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나 혼자만의 아웃리치가 아니라 모두의 아웃리치였다. 청년부와 성인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 또한 귀중했다. 청년부 안에서 일어난 영적부흥 또한 귀중했던 것 같다. 한국을 떠나기 전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축복이다.

자신의 삶을 살다보면 타인을 생각하는 법을 쉽게 잊는다. 생존을 위해 스스로만 생각하다보면 희생이나 사랑 같은 단어가 어색해지기도 한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가르친다.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남을 위해 희생하고 베풀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아웃리치는 세상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있음을 보여준 기회였다. 아웃리치가 준 또 하나의 가르침은 바로 희생이었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과 배움을 준 이번 아웃리치에 함께 해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싶다.



박한빈 형제
(양지 YJ청년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백사마을 어르신들 섬기는 ‘연탄교회’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함께 섬기고 기도해야 할 곳이 너무 많다. 정말 귀한 사역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미자립교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선교지와 선교사,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여기, 우리가 꼭 도와야 할 교회와 이웃들이 있다. 빈곤층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연탄교회’다. 연탄교회는 빈곤층 어르신들에게 연탄을 나눠주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사역에 동참해 줄 좋은 친구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연탄교회가 빈곤층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고 있다.



정도로 열악하다. 장마철이면 비가 새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많다. 이렇게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도 연탄교회 성도들은 자신보다 힘든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지난해 2,000원씩 헌금해서 모은 기금으로 백사마을에 ‘비타민 목욕탕’을 설립했다. 백사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무료로 이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역지에 아낌없이 후원을 하고 있다.

“연탄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매주 감사헌금을 2,000원씩 봉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교회 창립 4주년 기념예배를 기준으로 모인 감사헌금이 총 52만 원이었는데 그 헌금으로 경북 포항의 어려운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작은 예물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에 어르신들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난하지만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자’는 연탄교회의 신앙고백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연탄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우선 재정후원이다. 연탄교회는 정부보조금이나 다른 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탄과 쌀을 구입할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 운영비 또한 한지하게 부족하다. 물품을 후원할 수도 있다. 패딩, 장갑, 조끼 등 각종 방한용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연탄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말동무가 되어줄 봉사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허기복 목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연탄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했다.

“어르신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궁핍함보다 마음의 공허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을 연탄교회가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역에 관심을 갖고 연탄교회와 함께 어르신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연탄교회

주소: 서울 노원구 중계로4길 16
후원계좌: 128-116148-01-013(기업은행)
문의: 02-934-4933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 살부터 가난과 역경도 걱정 없어요. 예수에 우리들을 모시러 오면 할 일이 많다고 전해주세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서울시 노원구 백사마을에 위치한 연탄교회를 찾았다. 어르신 30여 명이 두 명씩 짝지어 앉아 ‘연탄교회 행복가’를 부르고 있었다. 마냥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 부르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연탄교회는 백사마을 시장골목에 있다. 누가 달동네 아니랄까봐 좁디좁은 시장골목에는 허름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 마을 정중앙에 있는 15평 남짓한 작은 건물이 바로 연탄교회다. 그 비좁은 교회에서 백사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30여 명이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공부도 하고 있다. 백사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거나 자녀와 교류가 없는 독거노인들이다.

연탄교회는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가 2015년 7월 세웠다. 허 목사가 처음부터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연탄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었다. 그 시작은 어르신들에게 쌀과 연탄을 나눠주는 정도였다.

“처음에는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연탄은행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쌀과 연탄을 나눠주고 가까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시더라고요.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육체적인

힘도 없다보니 교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연탄교회를 세웠습니다.”

연탄교회는 성장과 발전보다 성숙을 지향하는 교회다. 집사, 권사, 장로 등 직분이 없고 헌금도 2,000원 이상 봉헌하지 않는다. 전도도 강요하지 않는다. 어르신들이 이 땅에서 남은 생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할 뿐이다.

가난하지만, 선한 영향력 주는 교회

연탄교회는 그야말로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만의 교회다. 연탄교회에 출석하는 어르신들이 모두 부담 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파지를 주위 팔거나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일을 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요일은 어르신들이 예배드리기에 최상의 시간이다. 그런데도 수요일에 예배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성경공부 교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연탄교회 허기복 목사의 설교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어려운 용어나 격조 있는 단어보다 어르신들과 눈높이를 맞춰가며 이야기하듯 말씀을 전한다. 설교 중간 중간에 어르신들의 질문이 빗발치기도 하고, 농담을 주고받기도 한다. 예배가 다소 어수선했던 보일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성경책과 찬송가가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도 빼놓지 않는다. 그날의 말씀과 찬송가를 주보에 넣어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식사교제를 한다. 취재를 간 날에는 매콤한 제육볶음, 얼큰한 고깃국, 각종 나물 등이 푸짐하게 차려진 근사한 한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연탄교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연탄은행’을 통해 들어온 후원금으로 구입한 연탄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추위를 많이 탑니다. 보통 9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거의 7개월 동안 연탄을 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연탄은 금탄(金炭)입니다.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연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허 목사의 말대로 연탄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도시가스나 석유가 아니라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월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계층)이다. 겨울에 연탄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 어르신들에게 연탄은 곧 생명이다. 김춘자 어르신(78세)도 연탄교회에서 나눠 준 연탄으로 지난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연탄교회에서 나눠준 연탄 덕분에 따뜻한 바닥에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마음까지 뜨끈 뜨끈해지더라고요. 자식들도 신경 쓰지 않는 나를 연탄교회가 나서서 섬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연탄교회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은 말도 못할

FA 16기 현지 사역 마치고 귀국

청년선교사 23명 일본, 네팔, 인도네시아에서 단기선교



FA 일본팀이 노숙자사역을 준비하며 함께 찬양을 하고 있다.

FA 16기 청년선교사들이 귀국했다. FA 16기(일본 9명, 네팔 8명, 인도네시아 6명)는 지난 3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19주 동안 네팔, 인도네시아, 일본 등지에서 단기선교를 했다. 네팔팀은 KCC(네팔교회) 사역지원, 국내 아웃리치, 관계사역, 인도네

시아팀은 마을사역, 예배사역, 고아원사역, 일본팀은 어린이사역, 노숙자사역, 대학 캠퍼스사역, 현지 교회 협력사역 등을 했다. 한예은 자매(일본팀장)는 “일본팀은 처음 시작하는 사역이었기에 기획과 준비단계부터 어려움이 많았지만 모든 일정을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FA 17기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FA 16기 사역보고회는 8월 7일(수) 저녁 7시 도곡교육관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문의: 070-4464-8105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서빙고 세례봉사자 모집

자격 온누리교회 등록(세례)교인

서빙고 온누리교회 세례사역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자 세례교인이다. 봉사시간은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온누리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세례

식을 한다. 배기선 팀장(세례사역팀)은 “거룩한 세례사역에 동참해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263

TP 35기 훈련생(단기선교사) 모집

8월 26일까지 등록 마감

Acts29비전빌리지에서 TP(단기선교사) 35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TP는 선교지에서 1~2년 동안 장기선교사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단기선교사를 세우는 훈련이다. TP 35기 훈련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는 8월 26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추천서, 독후감, 파송단체 사역계획

서, 건강검진, 심리검사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친 다음 최종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훈련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된다. 문의: 031-331-8182

‘Why Mission?’ 수강생 모집

양재 80기 9월 7일, 인천 9기 9월 21일 개강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에서 양재 80기, 인천 9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양재 ‘Why Mission?’ 과정은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50분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8월 3일(토)부터 9월 7일(토)까지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인천 ‘Why Mission?’ 과정은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송도 제너렘 8층 소망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8월 25일(주일)부터 9월 28일(토)까지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선교’, ‘구약성경과 선교’, ‘신약성경과 선교’, ‘세계 선교 역사의 현황’, ‘한국 선교 역사’ 등을 주제로 7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6340-2427(양재) 010-4737-8864(인천)

‘경제정의팀’ 팀원 모집

경제 및 재정관리 관심 있는 성도

사회선교부 ‘경제정의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다. 경제정의팀은 성도들의 부채문제에 대해 법률적, 사회적인 해결방법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재정세미나를 열고 크리스천의 올바른 재정관리법을 교육하고 있다. 경제 및 재정관리에 관심 있는 성도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5550-3655

온사랑합창단 단원 모집

만 15세부터 만 35세 미만 발달장애인



온사랑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만 15세부터 만 35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다. 여자(5명 내외), 남자(5명 내외) 모두 모집한다. 오디션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4층 누리홀에서 진행된다. 자유곡 1곡(찬송가, CCM, 동요, 가곡)을 선택해 악보를 가져와야 한다. 연습은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한다. 장소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4층이다.

온사랑합창단은 2011년 6월에 창단했다. 학교, 관공서, 기업 등지에서 한 해 평균 16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다. 정기연주회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문의: 010-8784-6695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6636	권영신	김포	1136651	정옥경	SNS	1136668	이요섭	여호수아	1136691	이화자	강남B
1136637	김세준	강남B	1136652	이종락	관악금천	1136669	조은샘	여호수아	1136693	손사론	푸른누리
1136638	이찬실	인천 소망	1136653	강혜련	관악금천	1136670	곽용현	여호수아	1136694	권민지	서빙고
1136639	강미연	부천 희락	1136654	김성애	수원 북누리	1136671	백지혜	여호수아	1136695	홍지표	서빙고
1136640	이관우	양재	1136655	하상호	인천 소망	1136673	김연태	양지 동누리	1136696	신혜선	신용산
1136641	조우진	W	1136658	황인철	일산	1136677	고영숙	분당B	1136697	김효선	SNS
1136642	이현주	W	1136659	홍수정	인천 소망	1136678	허민구	수원 서누리	1136698	오혜정	SNS
1136643	곽효미	W	1136660	김정민	여의도	1136680	김기빈	하늘	1136699	이솔	SNS
1136644	정기웅	SNS	1136661	이서연	부천 한사랑	1136683	강태인	S브릿지	1136700	반가희	SNS
1136645	강상훈	SNS	1136662	오서진	대전 서누리	1136685	황은영	Point5	1136701	구본준	SNS
1136646	이하음	SNS	1136663	김성욱	여호수아	1136686	조희선	강서	1136702	염선우	SNS
1136647	신영란	SNS	1136664	김성원	여호수아	1136687	박장수	부천 희락	1136703	김태환	SNS
1136648	조시원	SNS	1136665	정유나	여호수아	1136688	김지은	부천 희락	1136704	김해인	SNS
1136649	조성훈	SNS	1136666	안소정	여호수아	1136689	윤경숙	송파B	1136705	김준	SNS
1136650	최지만	SNS	1136667	우지수	여호수아	1136690	김양호	송파B			

프리덤스쿨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 8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회복사역팀에서 프리덤스쿨 2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리덤스쿨은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도곡교육관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자유와 구원의 실제, 하나님 주신 정체성(OD)과 견고한 진, 불의의 영향력과 신자의 권위, 분노, 수동성, 수치심 etc 감정 강의,

용서, 임마누엘 저널링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8월 10일(토)부터 9월 15일(주일)까지 아이스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수강신청 후에는 사전인터뷰를 실시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10-8538-5994

[illegible]

소견

7/25(목) 신용산 방호권 성도 모친상 고 김희봉
 7/26(금) 도곡 이기현 집사 모친상 고 김순희
 7/27(토) 이수 고 김경웅 성도
 7/29(월) 서빙고 강희택 집사 부친상, 관악금천
 최민철 장모 빙부상 고 강한식
 7/30(화) 서초D 이동엽 집사 빙모상 고 홍영미
 7/30(화) 서초A 이정욱 성도 부친상 고 이호식
 7/31(수) 강남C 강해운 성도 빙부상 고 이종훈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웅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성, 권찬송,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센터 청소년 입소, 입교
 생 모집
 내용: 기출 및 가정복귀가 어려운 남자청소년원 쉼터 입
 소 및 하나로꿈학교(교육형 지정 대안학교) 입교
 대상: 입소생(15~20세) / 입교생(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문의: 유호연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간호(조무)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간호(조무)사 구인 / 찬양, 성경 읽기 등 봉사자 모집
 문의: 이진옥 복지팀장(031-334-900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지역주민 무료
 취업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구직자(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
 주요직종: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주차관리원,
 조리원 등
 문의: 박나희 사회복지사(02-796-7665)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활동일시: 화, 수, 목 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기엽 팀장(02-703-6011)

서초구립중장년인종합복지관 축탁의 모집
 내용: 어르신 건강상담 봉사(월 1~2회 2시간)
 문의: 김예진 사회복지사(02-3474-6060)

제 정

심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지원 현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학습성적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광 고

온누리가족독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
 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
 리 산 152-2(tel 032-732-0044)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순수매장
 잔여수량(가): 70기
 문의: 서충곤 팀장(010-3927-0705)

일대일 양육자반 수강생 모집

일시: 9월 17일~12월 24일 매주 화 오후 7:30~9:30
 장소: 서빙고캠퍼스 선교관 401호
 신청: i-School 신청
 문의: 02-3215-3220

일대일 심화과정 Make-up3 수강생 모집

일시: 8월 11일, 18일 매 주일 오전 8:10~10:00
 장소: 서빙고캠퍼스 선교관 402호
 신청: 문자신청(010-9265-1532)
 문의: 02-3215-3220

양육본부 교재제작 교정교열 가능자 구인
 내용: 양육본부 교재제작 교정교열
 문의: 010-3350-1077